

내외 소식

서울 스테이크 합동 노년의 모임 갖다.

지난 11월 4일 제4차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주최 합동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연차 대회를 다녀온 형제들의 말씀을 듣도록 계획된 이번 모임에서는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의 보고와 함께 각 와드 감독의 말씀을 들었으며 촬영 하여온 슬라이드를 감상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을 준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소년 조선 일보에 교회 소개

지난 11월 15일자 소년 조선 일보 3면에는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청소년에게 지식을 통하여 교회를 소개 할 기회를 갖기는 처음인 이번 기사는 한국의 종교 라는 제목으로

로 소개 되었으며 도움 말에는한 인상 부선교부장이 수고해 주셨다.

직접 신문을 볼 수 없었던 성도들을 위하여 게재 되었던 기사를 함께 신는다.

쳐치 뉴스, 김 호직 박사의 행적 치사

지난 10월 13일자 쳐치 뉴스는 한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 지기 까지의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고 김 호직 박사의 어려웠던 전도 활동을 잘 묘사한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신는다.



MISSION EXPERIENCES

The Work in Korea

Born into Confucianism, he had tried Ch'ondogyo, then Buddhism, and then finally, he joined the Presbyterian Church. But all had left him unfulfilled. So now, Kim Ho Jik was off to America to further his education in nutritional science, and possibly to find the true faith.

At Cornell University he found both. There, he received his master and doctoral degrees and met Oliver Wayman, a fellow student who introduced him to Mormonism. But his conversion was not instantaneous. It took study, and finally, a moving testimony by Elder Wayman that the Lord had moved upon Dr. Kim to come to America that he might receive the gospel and take it back to the Korean people in preparation for a great missionary work to be done there.

If he refused to do the work, predicted Elder Wayman, the Lord would raise up another in his place.

Dr. Kim reread the Book of Mormon and shortly thereafter, in 1951, was baptized in the Susquehanna River. As he came up from the water, he reported that the spirit manifested to him the truthfulness of his friend's testimony and a voice said to him, "Feed my sheep, feed my sheep."

The new convert returned to Korea, and became a powerful influenc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in his native land. A vice minister of education in the president's cabinet, Dr. Kim was given high responsibility in education and government until his death in 1959.

Previous to the conversion of Dr. Kim, missionary work was limited to Mormon servicemen stationed in Korea. Without benefit of any church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and handicapped by the language, they nevertheless attracted many persons through their efforts to teach English and gospel investigator classes.

Through these first efforts, the conversion of Dr. Kim and related activities, conversions were made, and on Aug. 2, 1955, the land was dedicated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by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then head of the Council of the Twelve.

In April of the following year, two missionaries from the newly organized Northern Far East Mission were granted visas to Korea, and the Korean District was organized with Dr. Kim as president.

Gail Carr was named president of the Korea Mission in 1962, when membership had grown large enough to support a fulltime missionary program.

알림 :

11월호 성도의 벗의 36페이지의 사진과 39페이지의 사진이 바뀌었음을 정정함.

서기 1973년 11월 15일 목요일

소년 조선 일보



교회 앞에 한 번씩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왼쪽 왼쪽은 보리논 선교부장, 오른쪽이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이다)

세계에는 1만 7천여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며 2년 동안 각국에서 크리스찬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성가에서 젊은 복음전도자들이 들뜬 마음을 갖고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음이 종종 눈에 띈다. 대개의 선교사들은 19세에서 21세에 이르는 젊은이들로 학업을 중단하고 78 개국의 107 개 선교부에서 복음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신앙과 불멸할 삶에 이르기 위하여"는 목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의 신앙 방식
물론은 그들의 신앙 개조에서 한 번 마하 같이 ①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②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③영광으로 된 사람 형제인 성신을 믿는다. 그들은 초라 크리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크리에 육신도, 예사, 간혹, 크리스, 육체가 크리에 있어 말 것을 믿는다. 그들은 땅, 대, 동령, 통지, 장판에 순종할 함을 믿으며, 또한 믿음은 중요하고 지켜야 지킴을 믿는다. 그들은 확고하고 믿음을 믿는다. 그리고 선교부 밑에 있고 있으며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익 그리고 만민에게의



▲상호 할심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갖는 청소년 대회.

한국의 종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도를 보여 주고 있는 기독교의 가운데 하나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820년 미국 동부 지역에서 백토기 시작되었다. 요셉 스미스라는 14세의 어린 소년일 줄 거대서 기도할 때 통해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를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리키며 "이제 내 사람

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좇으라"고 하였다는 것. 이 때로 6-25 사면 때 과병전 미군들은 그들로부터 '아무 교회도 하지 말 것'이라 모호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의 계시를 받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3년 만에 지난 해 1962년 1962년의 일이었다. 지금은 서울에 완전한 자립 교구인 스테이크(Stake)와 선교 부가 있으며 스테이크 밑에 8 개의 워드(Ward)와 2 개의 지부, 그리고 선교부 밑에 3 개의 지부부와 22 개의 지부

‘물몬교’라고 불러
한국엔 6·25 때 미군이

부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선교 부장은 미국인 에워드 브라운, 스테이크 부장은 이호 남에게 있다. ●선교 사업의 특징
물론 복음의 선교 사업을 퍼져 세우는 이 교회의 전도는 크게 나누어 있다. 현재 전

서울 스테이크 대회 갖다.

지난 1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청운동에 위치한 제4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약 650명의 성도와 여러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갖은 이번 대회에는 장내를 메우는 성도들의 인파로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8일에 갖은 전체 역원회에서는 여러 지도자들의 말씀과 함께 「이것이 나의 영광이나라」라는 영화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자신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층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었다.

또한 일요일 오전 8시부터 갖은 신권회에는 5와드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지혜의 말씀을 지킴」이라는 주제로 배심제 토론을 할 기회를 가졌다.

또 대회를 통하여 가장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를 가졌던 일반 총회에서는 선교부장님의 구도자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의 밤에 구도자를 초대하는 것과 가까운 사람에게 서신 형식으로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하는 방법등을 일컬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의무를 한층 굳게 해 주었다.

또 스테이크 부장님은 대회 주제인 교리와 성약 98편 11절을 주제로 훌륭한 말씀을 해주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새로운 11명의 장로가 탄생하는 모임이기도 하였다.



신재구 형제 사진관 개업

현재 서울 와드에 참석하고 있는 신재구 형제가 지난 11월 26일 송인동 동덕여고 입구 송인동 주유소 맞은편에 「아름 사진관」을 개업 했다.

오랫동안 사진을 취급해온 그는 이제 자기 만족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사진을 찍는 기쁨을 인겨주고 싶으면서 특히 성도들에게는 특별 봉사할 것을 약속 하기도 했다.



서울 스테이크 주최 합창 대회 갖다.

서울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합창 경연 대회가 지난 11월 17일 제4와드 상향회 홀에서 열렸다.

각 와드에 정규 합창단을 조직하는 계기가 된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산하의 전 와드와 신촌 지부가 참가하여 평소에 연마한 재능을 발휘 하였으며 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이번 대회의 심사는 특별히 외부에서 초청된 음악 전문가가 담당하였으며, 수고해 주신 심사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일성도의 음악적 재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회의 결과로는 제2와드가 우승의 영광을, 서울와드가 2위에 입상을 차지 했으며 지휘 상에는 서울 와드의 강영민 형제가 차지 했다.



와드 기록 사진전 및 탁구 시합 갖다.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아론 신권 상호 향상회 주최로 와드 기록 사진전 및 와드 대항 탁구 시합이 있었다.

와드 단위로 갖은 사진전은 각 와드의 발전해 온 역사 및 귀중한 사진들을 전시 하므로써 성도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는 전시회가 되었다.

또한 탁구대회에서는 막상막하의 열전 끝에 종합 우승에는 서울 와드가, 준우승에는 제2와드가, 3등에는 신촌 지부와 제5와드가 공동 입상 하므로써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호남 지방부 상호 향상회 전시회 갖다.

지난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호남 지방부에서는 상호 향상회 주최로 각 지부별 전시 회장을 마련하여 그간 준비 했던 회원들의 재능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이날 가졌던 전시회에는 그림, 서예, 사진, 수예, 목각등 여러가지 작품이 전시 되었으며 지부를 알리고 회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 훌륭한 모임이기도 하였다.

한편 심사 위원으로는 선교부장단과 선교부 역원이 수고해 주었으며 최우수 지부로는 동광주 지부가 뽑히는 영광을 차지 하였다.



새로운 선교사 소개

로산느 테일러
현동반자 강 문자
부름받은날 1973. 8. 15

김 만금
현동반자 머닥
부름받은날 1973. 7. 14

타마라 그리피스
현동반자 함 현숙
부름받은날 1973. 8. 15

최 정주
현동반자 피터슨
부름받은날 1973. 3. 10

박 한성
현동반자 브레리
부름받은날 1973. 3. 10

원 연화
현동반자 박 길자
부름받은날 1973. 5. 12

박 성주
현동반자 와쉬번
부름받은날 1973. 5

김 문순
현동반자 이 병린
부름받은날 1973. 5. 12

이 영직
현동반자 비스미스
부름받은날 1973. 3. 10

지역: 서울외도, 춘천, 청주, 동대전, 동광주, 서광주, 부산